

## ▶ 주제강연

## 생활과학의 발전전략

### - 지속가능한 생활과학, 도전과 비전

송 예 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지속가능성은 단지 환경이나 생태계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오늘 생활과학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면서 '지속가능성'과 접목되는 맥락은,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이 삶의 질이나 생활양식으로서의 건강, 복지 등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며, 삶의 질과 건강, 복지는 바로 생활과학의 연구목표이며 지향성이라는 점에서, 생활과학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학문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가정생활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한 속성 또한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 형태는 다를 지라도 가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초역사적으로 지속해 온 실재이자 앞으로도 지속될 실재(이기영, 1997:32)라는 점에서 그러하며,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의 장으로서 가정이 갖는 돌봄과 살림의 속성과 내용이 지속가능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지속가능하다'는 의미는 웰빙과 건강, 지속적 삶을 추구하는 생활양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이연희 외, 2007:22 ; 박종수, 2005:130). 또한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도 상통한다(권혁길, 2006:7 ; 박성복, 2003:69). 바로 이러한 건강과 웰빙, 삶의 질은 생활과학의 연구주제요 동시에 연구목표라는 점에서 생활과학은 늘 가정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생활과학이 관심을 갖는 연구의 주제 그리고 목표가 지속가능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과 함께, 다른 맥락에서 생활과학이 연구하는 가정생활 자체가 갖는 지속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요구되는 원리는 책임, 예방, 보호, 절약, 재생 등과 같은 지향성이며(권혁길, 2006:6), 이는 개발과 성취에 대

비되는 살림과 돌봄의 생활세계로서 가정생활에서 실천되는 지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지속가능하다'는 말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으며(정윤경, 2004:185), 또한 미래 세대를 고려하기 때문에 재생산의 의미가 필연적으로 부각된다(이연희 외, 2007:22). 따라서 가정은 날마다의 일상적 생활과정 속에서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통해 생활 유지·인격의 형성과 발달·공동문화의 창조를 이루어내는 재생산의 장으로, 인적 자본의 형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의 유지와 보호를 과제로 삼아 왔다는 맥락에서(v.Schweitzer.1991), 이미 지속가능한 가치와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생활환경 나아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맥을 같이 하며, 이는 곧 생활과학이 늘 연구해 오는 주제요 또 관점이라는 점에서, 생활과학은 이미 지속가능한 지향성과 패러다임에 기초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전에도 또 앞으로도 생활과학이 추구하는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제반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이 갖게 되는 도전은 또 비전은 무엇인가? 생활과학 내·외부적으로 위기적 요소를 규명한다면, 무엇보다 '가정생활'의 구조·기능·형태 등의 변화와 함께 야기된 가정과 사회 간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여전히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의식주생활과 자녀양육, 약자 보호 등이 이루어지는 단위이다. 가정생활은 의식주의 물질적 토대 위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가정의 보유 자원들이 분배·관리되는 장임은 분명하다(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 1999:178). 그러나, 그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형태의 변화는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동시에 연구의 틀과 내용의 변화와 맞닿게 된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 선택적 결혼과 이혼, 이동성 증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 및 확산 등의 요인은 가정생활 자체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정은 의생활·식생활·주생활의 주체이기는 하나 주로 이와 관련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의사결정자와 구매자,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가정 스스로 의식주생활의 공급자요 생산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자녀양육과 약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돌봄노동의 구도 역시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sup>2)</sup>.

이러한 변화는 생활과학을 구성하는 연구분야들, 대표적으로는 의생활·식생활·주생활·광의의 가정관리(가족관계·가족자원관리·소비자·아동·주거)분야의 연구주제와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왜 이 영역들이 생활과학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시킨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생활과학이 추구해 온 전문화·세분화의 과정은 생활과학 내부 전공영역들의 연계를 취약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2) 이를 돌봄의 위기 혹은 돌봄의 결핍(조혜정, 2006:77) 혹은 돌봄노동의 약화와 공백(한국여성개발원, 2005)이라 부를 수 있다.

학문분야와의 유사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통합성이라는 생활과학의 본래적 지향을 상당 부분 약화시켜 왔음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이며, 바로 이러한 점은 이 시점 우리 생활과학에 던져지는 도전의 단초가 되고 있다. 즉 생활과학, 과연 미래 사회에도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 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도전 속에서 기회와 비전도 함께 도출된다. 가정 자체 그리고 가정을 둘러싼 변화는 생활과학의 위상에 영향을 주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전략과 방안이 오히려 통합학문으로서 생활과학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었으나, 동시에 바로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 가정을 사회적 이슈로, 공공의 이슈로 그리고 정책의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의 미래지향적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서구 산업사회가 그러했듯이,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가정생활의 변화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으며, 우리 사회 역시 가족과 가정을 다시 보고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송혜림, 2006) 생활과학의 역할을 다시 조망하고 그 사회적 기여와 실천성을 위하여 연구의 틀과 지향성,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결국 위기와 기회 그리고 도전과 비전은 각각 별 개의 차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학이 도전의 요소들을 통해 제시되는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비전을 확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회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가정학, 생활과학 내부적으로 제기되었던 정체성의 문제들, 연구의 관점과 틀에 대한 고민과 모색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도전과 비전의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의 발전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 II. 생활과학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도전

### 1. 가정학 그리고 생활과학

현재의 생활과학은 가사과, 가정과,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체제와 맥을 같이 한다. 가정과 가정생활을 핵심적 연구주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이러한 학과 혹은 대학의 명칭에 따라 부각되는 강조점은 단계적으로 차이를 보여왔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생활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단계별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1단계 즉 우리나라에서 생활과학의 최초 설립기를 이화여자전문학과에 가정학(가사과)이 개설된 1929년으로 보고, 2단계는 1960년대 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가정대학으로 승격된 시점으로 본다. 이 시점에서 가정학의 전공분야도 전문적으로 세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3단계는 1980년 이후 인간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내 가정학에 인간생태학

이 도입된 시점으로, 학문의 정체성, 직업연관성 등의 영향을 받는 시기로 분석한다(문숙재, 1999:16). 이와 관련하여 다른 연구에서는 가사과로 시작한 한국의 가정학, 생활과학의 단계에 대하여 1950년대 중반부터 가정학과, 가정학부로 학과 명칭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말부터 가정학 교육은 전공분야의 확대 및 전문화를 시작하면서 가정대학으로 승격,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활과학으로 교체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단계별로 생활과학의 관심을 보면, 초창기에는 빈곤퇴치와 생활개선, 1960년대 이후는 전공의 세분화와 더불어 관련 전문인들의 양성, 1990년대 이후에는 시대적 변화와 학문적 요구에 따라 생활과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이경희, 2000:15-16).

이와 유사하게, 1960년 초반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생활의 과학화에 중점을 두다가 1960년대 말 전공분야의 세분화와 심화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였고, 1970년대에는 대학원 과정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사회과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게 된 과정들, 그리고 1980년대에 인간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전체성, 통합성, 관련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0-1990년대를 전문화된 가정학의 정체성 찾기에 부심한 시기로, 그리고 그 이후 역량강화모델, 사회운동모델 등을 제시하면서 공공가정 건강가정 등의 개념이 강조되는 최근까지의 가정학의 발달사를 분석하고 있다(윤숙현·이미정, 2006:90-91).

여기에서 1980년대 가정학이 생활과학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은 취업, 사회적 실천성 등의 요구와 함께 가정생활과 이를 둘러싼 환경으로 실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생활과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이기영, 1997:21).

그렇다면 학문분야로서 가정학, 생활과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연구대상 혹은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학, 생활과학은 가정생활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건강한 가족, 풍요로운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정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학문(윤숙현·이미정, 2006:90),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을 연구하는 학문(조현주, 2005:513), 인간생활을 연구하는 학문(박영숙·최혜선·윤인경·이승신·이주리, 2004:48), 인간과 가족, 이를 둘러싼 환경, 인간과 가족 및 환경과의 관계를 통합적·실천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유영주·강완숙, 1996:2), 가정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학문(문숙재, 1999:15; 이영세·김양희, 1997:186) 등으로 규정되어 왔다. 따라서 인간, 가족, 복지 등의 핵심 단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가정학, 생활과학의 이러한 관심을 통하여 추구해 온 학문적 목표는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공통된 지점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정학의 목표와 사명은, 초창기부터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 또는 가족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기영, 1997:21),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통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극대화(윤숙현·이미정, 2006:91),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활양식을 탐구하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이기춘·박정희·권훈정·김난도, 1999:11), 개인 및 가정의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지향(문숙재, 1999:15),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 1999:175), 가정복지(이정연, 1995:1)

등, '복지'와 '삶의 질'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정학은 인간생태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그 환경과 가정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정학의 연구방향 또한 의식주생활의 과학화라는 초기 목적에서 벗어나 미시적·거시적 수준에서의 가정복지의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할 수 있다(유영주 1995 ; 유영주·손정영, 1999:186). 그리고 이렇게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생활과학의 추구는 최근 들어 적극적인 건강의 개념, 즉 보다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복지(well-being), 삶의 질, 평화, 평등, 자율, 주체성 등을 포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송혜림, 2005).

이와 같이 '복지'는 가정학, 생활과학 연구의 주제로서 또 관점으로서 그리고 목표로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는데, 생활과학에서의 복지는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범주에서 삶의 질과 대체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삶의 질, 보편적 복지, 웰빙과 건강 등에 대한 생활과학의 추구는 곧 사회문화적인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으로, 생존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는 사회가 갖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충분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서구 사회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담론에서 건강이 핵심적 가치로 등장하는 경향(이미숙, 2004:477-478; 480)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 2. 통합성 논의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명칭과 학제의 변화 및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관심과 내용 및 틀의 발전과 변화 과정에서 생활과학이 지속적으로 논의한 주제가 바로 통합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가정학이 생활과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1980년대에도 그랬고, 199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가사과에서 가정과로, 가정과에서 가정대학으로, 가정대학이 생활과학대학으로 발전·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학문영역의 세분화, 전문화에 급급하여 학문적 정체성 위에 통합적 연구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에 가정학의 과제는 통합성에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유영주·손정영, 1999:179-180). 이와 함께, 한국 가정학의 체계와 성격, 발전 형태에 대하여 유사한 분석도 있다. 즉, 우리 가정학은 unified field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collection of specializations에 유사하여,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학문연구에서 노동분담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 수행과정을 전문성에 따라 분담하는데, 결국 분담된 과업 수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학의 경쟁력, 독자성은 통합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유태명, 1996:6). 이는 우리 가정학, 생활과학이 취업과 관련된 전문인의 양성을 중심으로 전문화, 세분화에 주력하고자 한 과정에서 간과한 점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또

한 향후 지속 가능한 생활과학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즉 전문성을 유지 하되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가속화된 대학구조조정과 대학 개혁의 압력은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학 내 전공영역의 세분화는 통합된 가정학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영역을 약화시켜 결국 생활과학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연구의 대부분이 부분적, 파편적인데 분과의 경향에 여기에 한 몫 함으로써 분과에 따른 소재 중심적 성향을 가지며, 역사적으로 가정생활을 연구대상으로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의하려는 학문적 노력, 나아가 가정생활 자체가 학문활동의 핵심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나아가 생활의 만족, 생활의 질 향상을 이념적 목표로 삼아 왔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고 그 연구결과를 사회에 적용하는데 소홀하였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 1999:174 ; 179).

결국 이러한 한계는, 생활과학 고유의 그리고 독자적인 연구대상과 함께 연구의 관점을 재정립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사회에 적용할 수 있게 재구성함으로써 실천학문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통합성 논의는 생활과학의 정체성 정립과 함께 독자성, 즉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업화·전문화의 과정에서 개별학문의 확대로 말미암아 학문 간의 경계가 불분명할수록 개별학문을 발전시키는 정도는 자신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파악하여 최대화하는 것인데(유태명, 1996:19), 바로 이 학문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정영금(2007)은 '가정'이라는 우리의 실천현장은 어느새 타학문분야의 중요한 현상이나 목표가 되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성과 독자성은 연구대상 뿐 아니라 접근방식과 관점, 패러다임 그리고 연구결과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합성 논의가 위에서 소개한 선행연구(의 게재년도)가 제시하듯 1990년대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상대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생활과학의 정체성이나 통합성에 대한 논의가 비중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이 갖는 함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는 1980년대 가정학이 생활과학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생활과학 내부적인 학문분과별로 다양한 대응전략, 예컨대 학과(단과대학)의 명칭 변경,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자격제도 마련, 타학문분야와의 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 결국은 '정체성'의 혼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으로, 통합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학문분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정체성 모색은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된 트렌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 생활과학의 정체성 혹은 통합성 논의의 상대적 약화는, 그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인가? 혹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선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전보다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응용학문이며 실천학문으로서 이 시대에 적절한 생활과학의 대응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제는 생활과학이라는 한 우산 아래에서 정체성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하위 전공분야별로 개별적인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생활과학 연구자들이 이러한 논의를 추진하는 주도적 집단이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응집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생활과학 연구자들이 함께 모이고 조직화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십만 가정학도의 응집성을 가시화한 일련의 단계들을 보면, 여전히 생활과학 내부적으로 통합을 향한 추구하고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도 경험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지금 이 시점, 지난 몇 십년에 걸쳐 논의해 온 통합성에 대하여 또다시 진부한 내용들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환경과 패러다임에 적실하게 적용되는 또 요구되는 통합성, 즉 통합성의 재개념화나 재구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과학의 과제는 생활과학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학문적 패러다임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그러한 확장의 과정에서도 각 학문영역이 '생활과학'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존재하여야 할 새로운 당위가 존재한다면(이기춘·박정희·권훈정·김난도, 1999:11),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의 발전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 III.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의 비전과 그리고 발전전략

앞에서 전문화·분업화되는 과정에서 생활과학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위해서는 통합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 때 연구대상뿐 아니라 접근방식과 관점, 패러다임 그리고 연구결과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가정의 돌봄기능을 지지하고 보충하고 대체하는 상품과 공공재가 등장하여 활성화되고, 의식주생활의 많은 부분이 상품시장에서 구매되는 재화와 서비스로 제공되지만, 여전히 가정 그리고 가정생활은 생활과학의 핵심적인 연구주제이며 대상이고, 생활과학의 하위연구분야를 통합하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가정생활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구대상이었으며, 가정학·생활과학에는 그에 관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가정생활은 특정한 생존

3) 2007년 5월 한국가정관리학회 30주년 학술대회에서도 통합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이는 식품영양학이나 의류학이 가사노동의 상품화 및 시장 확대에 따라 전문적 활동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노영주 외, 1999:175), 가정관리학은 다양한 하위전공분야가 모여 있음으로 인하여 정체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복합적이라는 점에 일정부분 기인한다.

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가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과 일련의 노동을 통해, 그들의 생존과 욕구충족, 인격형성과 개성의 발달을 도모, 그러한 과정에서 특정한 생활문화를 형성·공유하며, 가족의 생애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며, 가정생활은 가정학의 학문적 전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연구영역이다(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 1999:178).

그런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의 발전전략은 가정과 가정생활의 의미에 대한 포착과 시대적 배경에 따른 재개념화로부터 시도되어야 하며, 생활과학이 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풀어내고 접근할 것인가로 회귀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에서 가정경영의 합리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가정의 돌봄기능에 대한 재평가, 생활세계와 사회체제 간 불균형의 극복 그리고 사회 자본으로서 가정의 의미 재조명 등 네 가지 이슈로 구분하여 가정과 가정생활의 의미를 재조망하면서 생활과학이 갖는 비전을 제시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생활과학의 발전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 패러다임의 변화 : 경제적 합리성에서 가정경영의 합리성으로

먼저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자. 이제까지의 사회를 이끌어 온 가치관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그 주체는 경제적 인간형(homo oeconomicus)이었다. 경제적 인간형은 REMM(resourceful, evaluating, maximizing man)으로 재개념화되는데, 물질주의적 성향에 기초하여 자연을 정복하며,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동원, 개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로 무한한 진보와 성장을 달성하는 인간형이다(Weber, 1972). 그런데 조혜정(2006:91-92)은 돌봄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지금이 바로 이러한 경제 합리적 인간관을 관계와 상호의존을 통한 인간관으로 바꾸어 사유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돌봄의 회복을 통해 경쟁 사회로부터 포용과 소통의 원리가 주도하는 문화, 인간 존중 사회의 토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v.Schweitzer(1991)는 이미 경제적 합리성과 대비되는 가정경영의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매김되는 데 가정의 가치와 의미가 부각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즉 돌봄과 배움, 살림의 가치가 부각되며, 특히 관계적 노동, 돌봄의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나아가 이 노동을 전담해 온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교류 및 공동체적 인식이 확산될 문화에 대한 예견이다.

경제적 합리성과 대비되는 가치는 보살핌과 애정 그리고 신뢰와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일상적인 가정생활과정에서 경험하며 내면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그 구성원들의 생애과정을 통해 그러한 가치들이 경험됨으로써 여전히 가정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약자를 보호하며 나아가 건강하고 성숙한 개인과 사회구성원을 배출하는 돌봄의 단위라는 점에서, 가정의 위상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현재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보편적 복지 그리고 웰빙과 건강이 부각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맥을 함께 한다.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달성한 우리 사회 역시 이제 무한한 진보와 성장, 양적 팽창 등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지향성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성의 기준이 변화될 것이며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것이다. 파괴와 오염의 문화가 아닌 살림의 의미, 돌봄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며, 따라서 인적 자원의 재생산, 약자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망될 것이다(송혜림, 2000:40).

### 돌봄의 희소화와 가정의 돌봄기능에 대한 재평가

동시에 개별가정의 돌봄기능이 취약해 지면서 돌봄 자체가 희소해 지는 현상과도 맞물린다. 돌봄을 단지 약자에 대한 일방적 보호뿐 아니라 주고받는 상호성과 자발성, 관계의 유지 등과 같은 포괄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치열하고도 무한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은 돌봄이 갖고 있는 자발성과 상호성을 상당 부분 제한한다. 즉 그것이 부담으로, 치루어야 할 의무로 부가되며, 가정마다 돌봄을 제공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작은 일이 큰 사건으로 결과되고,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여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폐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편으로는 시장경제를 통해 돌봄이 해결되는 자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한 편으로는 공공재로서의 돌봄재화와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통한 해결은 구매력의 차이로 인한 계층 간 격차, 상대적 박탈감 등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해 왔으며, 공공재를 통한 해결은 여전히 낙후된 질과 수준, 그리고 잔여적이고 사후적인 개입과 지원의 방식을 통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서구 산업사회가 거쳐 간 길이기도 하다.

이로써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상적인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 주고 있으며, 그동안 가정이 수행해 온 무보수의, 헌신과 애정 그리고 친밀성에 기초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 생활세계와 사회체제간 불균형의 극복

또한 일상성의 맥락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 극복이라는 이슈도 일상적인 생활단위로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거대해진 거시체제와 사회경제적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가정의 균형과 조화, 협력, 연대 그리고 공사의 분리 해체와 재구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리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 그리고 제도로 대표되는 '체제'에 비해 생활세계는 일상적이고 친밀한데(이성화, 2004:229), 그 생활세계의 핵심은 바로 일상적인 가정생활이다(공인숙 외, 1999). 그런데 시민사회의 도입과 함께 나타난 공사

의 분리로 인하여 생활세계와 사회체제가 구별되고, 이 때 정치나 경제, 외부적인 압력과 같은 상위체계가 하위체계인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생활의 주체인 개인은 무기력해지는 문제(이경희, 1999:31), 생활세계와 사회체제 간 불균형으로 인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병리현상(이세영·김양희, 1997:191-192) 등이 나타난다. GNP 1만불, 2만불 시대를 외치며 우리 사회가 주력했던 수출, 노동, 경제, 산업, 건설, 임금 등은 바로 사회체제의 대표적 산물이고 또 요소이며, 이에 대한 전사회적 몰입으로 인하여 가정, 여가, 재생산 등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요소들은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온 지난 역사의 과정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제 노동과 여가·생산과 재생산의 균형, 삶의 질을 추구함으로써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중이며, 가정생활이 노동, 여가와 함께 사회성원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 1999:175),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도 가정의 역량 그리고 의미에 대한 다시보기 그리고 새롭게 보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여전히 중요하며, 그 구성원을 위한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유지체계라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 과정에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위축되고 평가절하되어 왔던 가정생활은, 정보화시대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유영주·강완숙, 1996:6).

따라서 현재 가족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맥락에 더하여,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고민, 돌봄의 위기 등을 중심으로 타학문분야, 예를 들면 사회학, 여성학, 경제학 및 정책 분야에서 가정을 거론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식량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식욕이 문제가 되고 경제생산이 중심이 되듯, 애정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문제가 되고 이로써 돌봄과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며(조혜정, 2006:91), 이는 애정과 신뢰 그리고 책임을 중심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1차적인 집단에 대한 요구로 연계되는데, 이는 곧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에서 가정의 의미가 부각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사회 자본으로서의 가정의 의미 재조명

특히 고도로 전문화·다양화·분업화·차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그가 종사하지 않는 다른 삶의 영역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는 낯설고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익명화와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통해 사회·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데(김성권, 2004:154; 167), 이런 점에서 '신뢰'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근간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서로 협조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성향, 다른 사람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성향, 이런 성향을 낳는 문화적 가치

및 태도, 개인을 사회적 관계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며, 공동이익을 강하게 의식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타심, 도덕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인데(이정전, 2003:181-184), 바로 가정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을 상호적으로 교환하고 축적하는 생활의 단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신적인 부모는 밖에 나가 일하고, 가정에서 자녀와 약자를 돌보고 보호할 성인이 남아있지 않다는 맥락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전통적 가정의 변모가 사회적 자본 고갈의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Putnum, R.D.1995 - 이정전, 2003:185 재인용).

그러나 사회적 자본 형성은 전통적 가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 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면서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며, 이를 통해 가정을 자원화할 수 있다면 가정은 여전히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자원화는 가정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을 개발·활용하고 이것에 투자하는 것이며(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 1999:178), 이를 위해 가정과 가정,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더 큰 사회가 연계되고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에서 가정경영의 합리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가정의 돌봄기능에 대한 재평가, 생활세계와 사회체제 간 불균형의 극복 그리고 사회 자본으로서 가정의 의미 재조명 등의 맥락에서 가정과 가정생활의 의미를 재조명하였는데, 바로 이렇게 부각되고 또 강조되는 가정, 가정생활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과학의 연구주제요 또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과학의 비전을 찾아낼 수 있다. 상술한 바처럼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연구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꼭 고유의 대상일 필요는 없다. 가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현재는 많은 학문분야에서 가족,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복지적·인류학적·여성주의적·성인지적·사회적 접근 등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동일한 혹은 유사한 대상과 주제를 연구하되 생활과학이 갖는 독자성은 이처럼 관점과 접근, 혹은 결과의 해석과 적용, 정책의제로의 재구성 등의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과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바로 이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재화를 보호하고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더불어 사적 영역, 생활세계에 대한

그리고 자연스레 인간의 공동생활과 문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성, 더불어 사는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점에 놓여 있다(v.Schweitzer, 1991).

따라서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라는 학문적 임무(이경희, 2000:32)를 중심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가 배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정책 제안 등 일반적이고도 실천적인 과제 외에, 위에서 제시한 가정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생활과학의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과 살림의 가치가 부각되는 가정경영의 합리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포착할 때, 가정경영의 합리성을 나타내고 또 평가하기 위한 생활의 표본, 척도 등을 개발하는 일,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서 그리고 돌봄의 공동체로서 가정이 갖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래서 가정의 자원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

가정의 돌봄기능 재평가와 관련하여, 더욱 바람직하게는 양성 간 평등하게, 그리고 충분히 자율적으로 돌봄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

가정의 돌봄기능을 사회가 함께 함으로써 가정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가정과 가정, 가정과 사회의 유대와 연계 그리고 공동체문화를 이루어내는 일

등이 그것이다.

“학문의 구획은 자연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편의대로 구획한 것이며, 더 엄밀히 말하면 지식 자체가 쪼개진 것이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쪼개진 것이다”(에드워드 윌슨, 2005 - 정영금, 2007 재인용).

“어떤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의 이론들이나 조사결과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 1999:175).

이제, 지금까지 생활과학 연구자들이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돌아보자. 그리고 앞으로 또 누구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자.

부디, 우리 생활과학 연구자들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정을 조망하고 그 의미를 재평가하며

가정에서 자발적이고 평등하게 돌봄을 주고받는 문화가 형성되며

사회 전체가 가정의 돌봄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안전한 체제가 되며

가정은 여전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약자를 돌보는 최적의 단위로 자리매김되며

이로써 가정은 애정과 신뢰의 네트워크 형성의 주체, 곧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래서

생활과학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던 바, 가족구성원의 복지 극대화·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 증진을 통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과학의 발전전략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인숙·노영주·성미애·송혜림·이승미·이완정·최연실(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 제 4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권혁길(2006).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수행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국민윤리연구 63. 111-141.
- 김성권(2004). 사회자본과 지속가능한 발전.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30. 153-176.
- 김숙희(1996). 미래사회와 가정학의 발전 방향. 가정문화연구 10. 3-9.
- 노영주·허정원·서지원·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73-183.
- 문숙재(1999). 생활과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0주년 및 생활과학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15-20.
- 박성복(2003). 삶의 질의 개념과 비교방법. 한국정책과학회보 7(3). 57-80.
- 박영숙·최혜선·윤인경·이승신·이주리(2004). 세계화시대와 가정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2). 47-67.
- 박종수(2005). 지속가능한 주택디자인을 위한 환경시범주택의 사례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2(2). 130-139.
- 송혜림(2000).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복지의 방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31-41.
- 송혜림(2005). 생활과학에서 '건강'이라는 코드의 재해석과 전망. 대한가정학회 제 5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송혜림(2006). 또다시 그러나 새롭게 가족이다. 한국일보 2006년 6월 17일자 시론.
- 유영주(1995). 가정학과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 4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유영주·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I. 대한가정학회지 34(3). 1-8.
- 유영주·손정영(1999).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시론 II - 통합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37(12). 179-192.
- 유태명(1996). 새로운 가정학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기존 패러다임의 비판적 검토. 대한가정학회 제 49차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

- 윤숙현·이미정(2006). 가정학적 접근을 통한 보육의 발전 방향 제시. 대한가정학회지 44(5). 89-98.
- 윤종희(2001). 가정복지의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9(8). 93-105.
- 이경희(2000). 21세기 생활문화의 전망과 생활과학의 과제. 영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 3회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 이기영(1997). 인간과 생활환경에 관한 가정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이기춘·박정희·권훈정·김난도(1999). 정보화·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과학의 새로운 지평. 대한가정학회지 37(7). 1-16.
- 이미숙(2004). 생활양식으로서의 웰빙 : 이론과 적용의 뿌리찾기. 한국생활과학회지13(1). 477-484.
- 이성화(2004). 또 다른 근대의 사회학과 문화 이론. 정치사상사연구 10(2). 215-207.
- 이연희·이현아·박재옥(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1). 21-32.
- 이영세·김양희(1997). 가정학이 추구하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185-200.
- 이인현(2006).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문화 형성. 21세기 문화·환경과 인문학.
- 이정연(1995). 한국의 가정학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가정학회지 33(4). 1-9.
- 정영금(2007). 가정관리학 분야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정윤경(200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가? 교육철학 32. 181-198.
- 조현주(2005). 가정학 정의의 도식적 접근. 중등교육연구. 53(2). 513-530.
- 조혜정(2006).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 '차가운 근대 cold modern'에서 '따뜻한 근대 warm modern'로. 사회과학논집 37(1). 71-96.
- 한국여성개발원(2005).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v.Schweitzer(1999).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주최 여성정책전문가 초청 강연 자료집.
- Max Weber(1972). Wirtschaft und Gesellschaft. 5. Auflage. Tübingen.
- v.Schweitzer(1991). Einführung in die Wirtshc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ulmer Verlag.